

주간기도정보

2024. 7. 30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젊은 선교사 10명 중 6명, “한국 선교 미래는 비관적”

KWMA·목회데이터연구소 25일 '2024 해외선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미래 선교를 책임질 49세 이하 젊은 선교사 10명 중 6명은 한국 선교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을 어둡게 하는 이유로는 선교사의 고령화와 지원자 감소, 체계적인 선교 전략의 부재를 꼽았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5일 '2024년 해외선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WMA 회원기관 선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선교계의 혁신을 재촉하는 채찍질과 자성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선교의 미래 전망을 묻자 '긍정적'(28.4%)이라고 생각하는 선교사들보다 '부정적'(44.5%)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27.1%였다. 주목할 점은 49세 이하의 젊은 선교사들의 경우 60.8%가 한국 선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한국 선교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선교사 고령화와 선교사 지원자 감소'(54.4%)를 꼽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KWMA와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매년 발표하는 '한국 선교 현황'에서는 최근 5년 새 40대 이하 선교사의 비율이 49%에서 32%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로는 '선교사의 열정과 헌신'(35.6%),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과 지원 지속'(23.8%), '지금까지의 선교를 반성하려는 자세'(19.7%)를 지목했다. 부정적인 미래를 바꾸기 위한 향후 바람직한 선교 전략으로는 '비즈니스 선교'가 지목됐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인 '교회개척 및 제자화'(40.6%)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16.5%), '문화적 접근'(9.5%), 'NGO 선교'(6.8%) 등이 앞으로 바람직한 선교 전략으로 꼽혔다. 파송 단체나 선교사 중심이 아닌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선교사들의 73.3%는 선교 정책의 중심이 '현지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선교사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교사들은 17.3%였다.

젊은 선교사들이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 선교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미래 세대의 선교사 발굴'(39.5%)이 선정됐다. '선교 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선교 사역'(35.3%), '성도들에게 선교 교육 강화를 통한 선교의 식 확대'(33.2%),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선교 사역 지원'(24.9%)을 요청하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접한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선교사들이 여전히 '교회개척' 사역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전에는 당연히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 선교사들의 역할은 현지인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의 힘으로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전했다(출처: 아이굿뉴스 종합).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9-2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요한계시록 12:10-11)

하나님, 갈수록 줄어드는 선교사 지원자와 고령화로 인해 한국 선교의 미래 전망이 어둡게 보이니 선교의 주체가 되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주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통해 선교가 완성되기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실 주님을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변하고 쇠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어린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한국교회에 더욱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생명의 교회가 세워져 주께서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의 그날을 속히 이뤄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원 9,000여 명 감소...사망자 증가 탓

사회통제 강화에 따라 입소자는 증가했지만,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9,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집계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수는 약 19만 명이다. 이는 지난해 수감자 수에 비해 약 4.6% 감소한 수치다.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올해 6월 말 기준 북한 정치범수용소별 수감자 수는 ▲14호(개천) 3만 9,300여 명 ▲15호(요덕) 3만 4,000여 명 ▲16호(화성) 2만 1,000여 명 ▲17호(개천) 3만 9,600여 명 ▲18호(북창) 2만 3,800여 명 ▲25호(수성) 3만

2,100여 명 등이다.

소식통은 “인원 변동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정치적 불만 요소의 증가에 따른 입소자 증가와 국가의 강력한 관리소(정치범수용소) 징벌 생산 과제 및 통제로 인한 사망자 때문”이라면서 “내부에서는 입소자가 있었음에도 총인원이 줄어든 관리소는 사망자가 입소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18호 관리소의 수감 인원 증가 원인은 국가에 대한 내부 불만 요소의 증가와 정치적 의견 표출자 및 정책 반대자들의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초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전복의 자그마한 요소도 초기에 즉시 막기 위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18호 관리소의 경우에는 일부 관리 인력이 비밀 염수와 비법 행위, 토착 행위 방지를 위해 교방(주둔지 교체) 됐다”면서 “간부사업(인사)으로 관리 인력의 재배치도 일부 진행됐다”고 했다.

16호 정치범수용소에는 올해 가족 단위와 어린아이, 노인이 많이 들어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한 가족 단위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가족의) 위로, 옆으로 가문, 문벌이 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범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처벌하고 정신교육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黨) 대열을 정수분자들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국가와 당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당 일꾼들을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잔여 세력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잡혀 들어왔다.

위성 발사와 관련해 의견을 낸 당 일꾼도 가족들과 함께 수감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와 관련해 비밀엄수에 문제를 일으켰거나 심려 말씀이 내려진 구간, 단위의 당 일꾼들, 밀·보리 경작을 늘리라는 국가 정책과 실제 현실은 맞지 않다고 실언한 당 일꾼 등도 반동으로 찍혀 정치범수용소로 잡혀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범수용소 입소자는 일반 주민이 많은데, 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종교적 활동, 해외 및 국내에서 한국행을 시도한 대상들”이라며 “이런 대상들은 국가적으로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모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사회적으로 격폐하는 것”이라고 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시편 102:17,20-21)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잠언 16:6-7)

하나님, 인권유린의 온상인 정치범수용소에 입소자를 능가하는 사망자가 많다는 소식에 어떤 것으로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비참한 이 땅을 주께 의탁 드립니다. 사악한 울무로 주민들의 생명을 경히 여기며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추종하는 정수분자들을 만들어 자아송배의 탑을 쌓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꾸짖어 주십시오.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자들과 특별히 연약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들이 갇힌 자의 탄식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감시와 통제로 두려움에 있는 북한 영혼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악에서 떠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도다”

학교폭력 검거 30.2% 증가...성폭력·성희롱 가장 크게 늘었다

서울경찰청,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 결과 발표



이 지극조한 학교폭력...처사녀 다바.미오

서울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동기(1-6월) 4,351건에서 올해 4,688건으로 7.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거 건수도 지난해 1,032건에서 1,344건으로 30.2% 증가해 신고·검거 건수가 모두 늘었다.

특히 학교폭력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성폭력·성희롱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성희롱 신고건수는 253건에서 662건으로 161.7% 증가했고, 검거건수도 217건에서 315건으로 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662건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이 55.9%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16.8%,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1.3%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이성(47.3%)보다는 동성(51.9%)에 의한 강제추행이 많았다. 남성 간 89%, 여성 간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경우 오프라인(36.9%)보다는 온라인상 성희롱(63.1%)이 많았다. 특히 딥페이크에 대한 신고가 20건 발생해 최근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 학교폭력도 지난해 630건에서 올해 776건으로 23.2%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소년 범죄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전년 대비 22% 줄었으나, 도박은 7건에서 23건으로 228%, 마약은 22건에서 35건으로 59.1% 증가했고, 절도도 28% 증가했다. 청소년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15.8% 감소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름방학을 맞아 스쿨벨을 발령하기로 했다. 스쿨벨은 청소년과 관련한 중요 이슈가 발생하면 학교 및 학부모에게 주의·대응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알림 시스템이다. 또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응하고자 '청소년 성범죄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집중적으로 예방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방학 기간 중독청소년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치유·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IT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응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출처: 뉴시스, 뉴스1 종합).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6:20-22)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1:21-23)

하나님,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범죄 가운데 특히 성폭력과 동성간 성추행이 많음을 보며 사회에 만연한 죄악이 다음세대에 퍼지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디어와 온라인으로 죄에 쉽게 노출되어 음란과 죄의 정욕에 종노릇하게 하는 원수의 간계를 파하시고 청소년들을 둘러싼 잘못된 교육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다음세대에게 진리를 들려주소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께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된 다음세대가 거룩한 믿음과 복음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어나 만 천하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